

2009~201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음악과 문항의 출제 경향 분석

김 영 미* · 최 병 옥**

본 연구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음악과 교과 내용학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출제된 음악과 문항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출제된 음악과 임용시험 200 문항을 수집하여, 12개 과목 간,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에 따라 출제된 비율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평가 영역의 재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과 12개 과목 간 출제 비중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과목별 평가영역 간에도 출제 비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내용요소의 분석에 있어서도 72개 중에서 15개가 5년 동안 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음악과 임용시험의 출제 과목 간의 비중이나 평가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음악과 내용 지식,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음악교육과 교육과정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도구 및 방법

III. 연구결과

1. 음악과 평가내용요소의 출제경향
2. 음악과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별 평가내용요소의 출제경향

IV. 결론 및 논의

* 경남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목이 편제된 시기는 미군정기이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9월 24일에 초등학교를 개교하고 9월 28일 각 도에 통첩하여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10월 1일을 기해서 개교할 것을 지시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71:100~101). 당시 교과목 및 교수 시수 표에 음악이 주당 1~2시간 편제된 이후로 현재까지 중등 교과목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다(최호성외, 2012). 미군정기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로써,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하는 교과(교육과학기술부, 2011)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을 담당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등음악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대학이나 음악과의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중 어느 한 곳에서 요구되어지는 과목들을 이수하여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정재은, 2012). 음악교사의 양성방식이 어떠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문성을 갖춘 음악교사를 길러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직의 전문성 개념 속에는 근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교육자로서의 인간적, 감성적, 지각적 능력을 포함하는 교육자적 인성 등이 개념화되어 있다(손충기, 2004).

음악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에는 미학적 지식, 악곡의 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해, 가창지도를 위한 올바른 발성법의 터득과 학생들로 하여금 가창 및 독보능력을 계발하도록 유도, 한 개의 악기 정도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과 교과과정에 나오는 반주의 가능, 최소한 교과과정에 수록된 수준 정도의 곡을 작곡 및 편곡, 곡의 분석, 올바른 음악과 학습평가 등이다(민경훈 외, 2010). 미국 교사교육위원회의 음악교사 자격증 수여 기준으로 개인적 자질, 음악적 능력, 전문가적 자질을 제시하고 있는 있는데, 특히 수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음악적 능력’으로는 연주, 반주·노래·지휘, 타인의 연주를 지도·평가, 작곡 및 편곡, 음악작품의 질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 모든 음악에 사용된 음악적 기법의 이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Mark, 1988).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1992학년도부터 교원임용고사가 실시되었는데,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책의 목적은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교사로서의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자를 선발,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인원의 교사를 공급하고 출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백순근 외, 2008). 교원임용고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방법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무엇보다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의 습득 정도가 선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더불어 중등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제도나 시험문항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석사학위 논문에서 중등교원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을 분석하거나, 이를 통한 교과과정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되어졌다(이은실, 2004; 김소민, 2007; 손옥, 2007; 황완, 2007; 김선영, 2008; 김희진, 2008; 김영주, 2009; 김재연, 2010). 그런데 이들 연구의 대다수는 2009학년도부터 교원 선발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를 제시하기 전의 것이고, 그 후의 연구(김재연, 2010)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악 문항을 분석한 내용이어서, 음악 전공영역 전체의 평가내용요소와 기출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실시된 중등교사 선발시험 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2007.10.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에 의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5년 동안 실시되어 왔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임용고사 출제를 위한 각 교과별 교사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음악교사의 자격 영역(대범주)은 교직이해 영역, 학

습복지 영역, 학생이해 영역, 교과 영역, 교육과정 영역, 수업 영역, 평가 영역, 학습 지원 영역, 교육공동체 영역, 교사전문성 등 10개 영역이고, 이에 따라 46개의 세부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부터 표시과목별 출제 문항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음악과 평가내용요소를 토대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음악과 문항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평가내용요소를 토대로 임용시험 문항을 분석한 연구가 없어,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별로 어떤 내용요소가 어떤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어떤 평가내용요소가 시험에서 배제되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연구 성과물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 이후의 임용고사 문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내용요소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음악과 평가내용요소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2014학년도 교원임용고사부터 전공 시험이 다시 서술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평가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루어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별로 2009학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중등교원 임용고사의 음악과 문항의 출제빈도를 분석한다. 둘째, 분석 결과를 통해 음악과 평가내용요소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중등 교사 임용시험 음악과 1차 시험 전공 선택형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공 시험이 선택형으로 출제된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제에서 2013학년도 시험까지 200문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기출문항 자료실에서 수집하였다.

2.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따른 분석에서는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음악과』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연구』에서 제시한 12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와 32개의 평가 영역에서 72개의 평가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둘째,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제에서 2013학년도 시험까지의 200문제를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 따른 평가영역과 평가내용요소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5년간 임용시험에서 다루어지는 평가영역의 수와 평가내용 요소의 수를 연도별로 그 추이를 밝혔다. 문항의 분석에 있어서는 음악교육학과 교수 4인, 음악교사 4인, 최근 임용시험 합격생 5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Ⅲ. 연구 결과

1. 음악과 평가내용요소의 출제경향

음악과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별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비추어 최근 5년간 출제된 200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Ⅱ-1>과 같다.

<표Ⅱ-1> 음악과 평가내용요소의 5년간 출제 빈도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5년간 출제된 평가내용요소(%)	5년간 출제 빈도(%)
교과교육학	4	13	12	53(22.5)
화성법	5	9	8	24(10.1)
대위법	2	3	3	7(3)
음악형식론	3	15	7	10(4.2)
작곡	2	2	2	7(3)
서양음악사	2	8	6	29(12.3)
국악개론	3	7	7	62(26.3)
국악실기	2	2	2	8(3.4)
지휘	2	4	4	13(5.5)
한국음악사	3	3	2	10(4.2)
장구 반주법	2	3	2	9(3.8)
피아노 반주법	2	3	2	4(1.7)
계	32	72	57(79%)	236(100)

중등교사 임용시험 음악과의 12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 따른 평가 영역 수는 32개이다. 평가내용요소는 72개이며, 이중 57개(79%)가 임용시험에 출제되었다. 평가내용요소 수는 교과교육학 13개, 음악형식론 15개를 비롯하여 작곡, 국악실기 각 2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본이

수 과목 및 분야별로 5년간 출제 빈도(%)를 보면 국악개론 62회(26.3%), 교과교육학 53회(22.5%)를 비롯하여 대위법, 작곡 각 7회(3%), 피아노 반주법 4회(1.7%)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출제 빈도 분석에 있어서는 임용고사에 출제된 평가내용요소의 5년간 출제 빈도 수 236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빈도수가 236로 나타난 것은 하나의 평가내용요소가 여러 문제에 언급된 것과 하나의 문제에 여러 평가내용요소가 포함된 것을 모두 각각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음악과의 특정 평가내용요소가 교원 임용고사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음악과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별 평가내용요소의 출제 경향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시험까지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1차에 출제된 200문제를 12개의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 따른 평가내용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음악교육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음악교육론은 4개의 평가영역, 1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음악교육론은 5년간 53회(22.5%)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아주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음악교육론의 평가영역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이 18회(7.6%)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음악교수법’ 17회(7.2%), ‘음악교육철학’ 11회(4.7%)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14회 출제되었고, ‘음악교육심리’와 ‘평가 도구 및 방법’이 각 7회 출제되었으며, 이들 3개의 평가내용요소는 매년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절차’는 5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2> 음악교육론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음악교 육철학	교육 철학과 음악교육	3,9			6	7	4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5			2, 10	3
	현대의 음악교육철학		8	2		8, 10	4
계		2	2	1	1	5	11(4.7)
음악과 교육과 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11				1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5, 12	1,6,9	1,3,9, 10,11	1,2	1	14
	2009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9	1,3	3
계		3	4	5	3	3	18(7.6)
음악교 수법	교수법		2,7				2
	교수·학습 이론	8		4,5,12			4
	교수·학습 전략					4	1
	교수·학습 실제	11			10	6	3
	음악교육심리	2	4,12	7	4	8,9	7
계		3	4	4	2	4	17(7.2)
음악과 평가	평가 절차						
	평가 도구 및 방법	4	3	8	5,8	11,12	7
계		1	1	1	2	2	7(3)
총계		9	11	11	8	14	53(22.5)

2) 화성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화성법은 5개의 평가영역, 9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화성법은 5년간 24회(10.1%)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화성법의 평가영역에서는 ‘화음’이 10회(4.2%)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조(조바꿈)’ 5회(2.1%), ‘비화성음’ 4회(1.7%)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중지법’ 영역에는 평가내용요소는 다수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출제되는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3화음 및 7화음’, ‘변화화음 및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이 각 5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정의 이해’는 5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3> 화성법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화음	음정의 이해						
	3화음 및 7화음	6,5, 37	28	13			5
	변화화음 및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	37		13, 14	18	14	5
계		4	1	3	1	1	10(4.2)
중지법	정격 중지, 반 중지, 허위 중지 및 변격 중지의 분석	38	14				2
계		1	1				2(0.9)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14	25		15, 18		4
계		1	1		2		4(1.7)
이조 (조옮김)	이조 실습	18			13, 18		3
계		1			2		3(1.2)
전조 (조바꿈)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16	14	13	11	15	5
계		1	1	1	1	1	5(2.1)
총계		8	4	4	6	2	24(10.1)

3) 대위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대위법은 2개의 평가영역, 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대위법은 5년간 7회(3%)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아주 낮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위법의 평가영역에서는 ‘악곡 분석’이 6회(2.5%)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종별 대위법’은 단 1회 출제되었다. 특히 ‘종별 대위법’의 경우는 2009학년도 임용고사에 한 번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 평가영역으로서 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푸가의 분석’이 매년 출제되었으며, 2013학년도에는 ‘모방 기법에 의한 인벤션’이 처음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4> 대위법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종별 대위법	1:1, 1:2, 1:4 방식에 의한 대위 기법의 이해 및 적용	17					1
계		1					1(0.5)
악곡 분석	모방 기법에 의한 인벤션					18	1
	푸가의 분석	19	15	16	14	16	5
계		1	1	1	1	1	6(2.5)
총계		2	1	1	1	2	7(3)

4) 음악형식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음악형식론은 3개의 평가영역, 15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음악형식론은 5년간 10회(4.2%)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아주 낮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음악형식론의 평가영역에서는 ‘연주형태’가 5회(2%)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악곡형식’은 4회(1.7%) 출제되었다. 그리고 ‘호모포니, 폴리포니 양식’의 경우는 2009학년도 임용고사에 한 번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 평가영역으로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형식론의 경우는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가장 많은 평가내용요소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제되는 빈도는 미미하여 대다수의 평가내용요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5> 음악형식론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악곡형식	동기, 악구, 악절	38				17	2
	2부분 형식, 3부분 형식, 복합 3부분 형식		16				1
	론도 형식, 소나타 형식				23		1
계		1	1		1	1	4(1.7)
호모포니, 폴리포니 양식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21					1
계		1					1(0.5)
연주형태	독주곡, 독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20			22	2
	오페라, 오라토리오		27			23,24	3
계			2			3	5(2.0)
총계		2	3		1	4	10(4.2)

5) 작곡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작곡은 3개의 평가영역,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작곡은 5년간 7회(3%)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아주 낮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작곡의 평가영역에서는 ‘국악 창작’이 4회(1.7%)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선율 창작’은 3회(1.3%) 출제되었다. 작곡의 경우는 두 개의 평가영역에 두 개의 평가내용요소가 설정되어 있어, 평가영역의 수와 평가내

용요소의 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6> 작곡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선율 창작	악구 및 악절 형식으로 된 선율 만들기		22		22	19	3(1.3)
국악 창작	가락과 장단을 바꾸어 창작	25	18	27		20	4(1.7)
총계		1	2	1	1	2	7(3)

6) 서양음악사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서양음악사는 2개의 평가영역, 8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서양음악사는 5년간 29회(12.3%)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서양음악사의 평가영역에서는 ‘시대별 음악양식’이 19회(8.1%)로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작곡가와 작품’이 10회(4.2%)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이 5년간 10회(4.2%), ‘세계의 음악’ 5회, 시대별 음악양식에서 ‘고대 및 중세’와 ‘낭만’ 시대가 각 4회 출제되었다. 한편, ‘르네상스’와 ‘고전’ 시대는 5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7> 서양음악사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시대 별 음악 양식	고대 및 중세	24	23	17		21	4
	르네상스						
	바로크				22	23,24	3
	고전						
	낭만	26		18	12,20		4
	20세기 음악		19		26	25	3
	세계의 음악	22	24	28	24,16		5
계		3	3	3	6	4	19(8.1)
작곡 가와 작품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	20, 27	13	19,20 23,25	26	21,25	10
계		2	1	4	1	2	10(4.2)
총계		5	4	7	7	6	29(12.3)

7) 국악개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국악개론은 3개의 평가영역, 7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국악개론은 5년간 62회(26.3%)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국악개론의 평가영역에서는 ‘악곡’이 28회(11.9%)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초이론’이 27회(11.4%)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가 5년간 28회

(11.9%), ‘기보법’이 12회, ‘시김새·조·형식’과 악기 영역의 ‘구조와 특징 및 분류’가 각 7회 출제되었다. 국악개론의 7개 평가내용요소 중 ‘기보법, 시김새·조·형식,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악기의 구조와 특징 및 분류법’은 5년간 매년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8> 국악개론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기초 이론	기보법, 독보법	10, 28	29, 31	31, 35	31,33, 38	29,36 39	12
	장단의 구조와 관련 용어			34, 36	25	30, 35	5
	시김새·조·형식	25	30	29,35	30,40	34	7
	연주 형태	29				20,39	3
계		4	3	6	6	8	27(11.4)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13, 23, 30, 31, 33	33, 40	10,27, 30,33 36,38	5, 21, 29,31, 32,33, 34	3,5,30, 31,36, 38,39, 40	28
계		5	2	6	7	8	28(11.9)
악기	구조와 특징 및 분류법	32	35, 40	32,33	27	33	7
계		1	2	2	1	1	7(3)
총계		10	7	14	14	17	62(26.3)

8) 국악실기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국악 실기는 2개의 평가영역,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국악실기는 5년간 8회(3.4%)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아주 낮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국악실기의 평가영역에서는 ‘기악’이 5회(2.1%), ‘성악’이 3회 (1.3%) 출제되었다. 국악실기의 경우는 두 개의 평가영역에 두 개의 평가내용요소가 설정되어 있어, 평가영역의 수와 평가내용요소의 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가 5회(2.1%) 출제되었고,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는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출제된 바 있다.

<표 II-9> 국악실기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성악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	10	18,38				3(1.3)
기악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	7,35	36,39			32	5(2.1)
총계		3	4			1	8(3.4)

9) 지휘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지휘는 2개의 평가영역, 4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지휘는 5년간 13회(5.5%)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낮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지휘의 평가영역에서는 ‘음악 해석’이 9회(3.8%), ‘박자 짓기’가 4회(1.7%) 출제 되었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총보 독해력, 음악 문헌 지식’이 5회, ‘악기 및 연주 매체에 대한 지식’이 4회 출제되었다. 한편,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은 2009학년도에 출제된 이후로 임용시험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10> 지휘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음악 해석	악기 및 연주 매체에 대한 지식			21, 24		26, 28	4
	총보 독해력, 음악 문헌 지식		17, 26	24	19	26	5
계			2	3	1	3	9(3.8)
박자 짓기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	36					1
	시각, 맺음, 분할법		17	15	17		3
계		1	1	1	1		4(1.7)
총계		1	3	4	2	3	13(5.5)

10) 한국음악사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한국음악사는 3개의 평가영역, 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한국음악사는 5년간 10회(4.2%)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낮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음악사의 평가영역에서는 ‘음악 양식’이 8회(3.4%), ‘박자 짓기’가 4회(1.7%) 출제 되었다. 한국음악사의 경우도 세 개의 평가영역에 세 개의 평가내용요소가 설정되어 있어, 평가영역의 수와 평가내용요소의 수가 동

일하게 나타났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이 5년간 매년 출제되었다. 한편,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와 감상’은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출제된 이후로 임용시험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교류사’는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한국음악사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39	10, 34	37, 39	3, 39	37	8
계		1	2	2	2	1	8(3.4)
인물사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와 감상	40	37				2
계		1	1				2(0.8)
교류사	외국과의 음악교류사 이해 및 악곡 감상						
총계		2	3	2	2	1	10(4.2)

11) 장구반주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장구반주법은 2개의 평가영역, 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한국음악사는 5년간 9회(3.8%)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낮은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장구반주법의 평가영역에서는 ‘기본연주법’이 8회(3.4%)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주법 및 장단’이 5년간 매년 출제되었다. 한편, ‘반주법의 적용’에서는 ‘한 배와 장단의 세(勢)에 알맞은 연주’라는 평가내용요소가 2013학년도에 처음 출제되었으나, ‘사설 불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형 연주’는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II-12> 장구반주법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기본 연주법	주법 및 장단	34	32	40	7,25, 27,36	35	8
계		1	1	1	4	1	8(3.4)
반주법 의 적용	한 배와 장단의 세(勢)에 알맞은 연주					27	1
	사설 붙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형 연주						
계						1	1(0.4)
총계		1	1	1	4	2	9(3.8)

12) 피아노반주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피아노반주법은 2개의 평가영역, 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한국음악사는 5년간 4회(1.7%)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여타 이수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가장 낮은 출제 비중을 나타내었다.

피아노반주법의 평가영역에서는 ‘반주 형태’가 4회(1.7%)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평가내용요소에서는 ‘반주 형태, 페달 사용법’이 주로 출제되었고, ‘리듬 형태에 따른 반주법’은 2010학년도에 한 번 출제된 바 있다. 한편, ‘건반 화성’ 평가영역은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피아노반주법의 5년간 출제 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5년간 출제 횟수(%)
		09	10	11	12	13	
반주 형태	반주 형태, 페달 사용법		21		28	13	3
	리듬 형태에 따른 반주법			26			1
계			1	1	1	1	4(1.7)
건반 화성	화성 진행						
총계			1	1	1	1	4(1.7)

IV. 결론 및 논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의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음악」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연구』에서 제시된 음악과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에 따라 2009학년도에서 2013학년도 중등교사 음악과 임용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분석한 결과와,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12개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간 출제 비중의 문제이다. 지난 5년간 중등교사 음악과 임용고사에서 과목별 출제 비중을 보면 국악개론(26.3%)이나 교과교육학(22.5%)은 높은 비중을 나타내지만, 대위법(3%), 작곡(3%), 피아노 반주법(1.7%) 등은 아주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체 12개 과목 중에서 출제 비중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 7개 과목에 이르고 있다.

둘째, 평가영역별 출제 비중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32개 평가영역 중에서 5년간 국악개론의 ‘악곡’ 28회, ‘기초이론’ 27회, 서양음악사의 ‘시대별 음악양식’ 19회, 음악교육론의 ‘음악과 교육과정’ 18회, ‘음악 교수법’이 17회 출제되었다. 반면에 화성법의 ‘종지법’ 2회, ‘비화성음’ 4회,

‘이조(조옮김)’ 3회, 대위법의 ‘중별대위법’ 1회, 음악형식론의 ‘악곡형식’ 4회, ‘호모포니, 폴라포니 양식’ 1회, 작곡의 ‘선율창작’ 3회, ‘국악창작’ 4회 등 15개의 평가영역이 5년간 5회 이하의 출제 빈도를 나타내었고, 이중 한국음악사의 ‘교류사’와 피아노반주법의 ‘건반화성’ 평가영역은 한 번도 출제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평가요소 간 출제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이다. 음악교육론의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4회, 서양음악사의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 10회, 국악개론의 ‘기보법’ 12회,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28회 등은 높은 출제 비중을 나타내는 평가내용요소인데 비해, 음악교육론의 ‘평가절차’를 비롯한 15개의 평가내용요소는 5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고, 3회 이하 출제된 평가내용 요소도 27개에 달한다.

넷째, 특정 평가내용요소의 반복적 출제 경향이다. 지난 5년간 매년 출제된 평가내용요소는 음악교육론의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롯한 12개이고, 4년간 출제된 평가내용요소는 화성법의 ‘변화화음 및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을 비롯한 5개, 3년 출제된 것은 화성법의 ‘3화음 및 7화음’을 비롯한 11개이다. 즉, 음악과의 72개 평가내용요소 중에서 약 28개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편성·운영하는 각 과목은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사에서는 과목 간 출제 비중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특정 과목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잘못 인식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각 과목의 ‘평가영역’이나 ‘평가내용요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과목이라도 더 중요한 지식의 영역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지식의 상대적 중요성을 초월하여 평가영역으로 설정된 모든 평가내용요소들이 균등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편식이 건강한 신체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듯이, 학생들이 특정 영역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도 전인적 역량을 갖춘 교사로서 성장

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영역과 평가내용요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 기준 (2006. 11. 17)”을 근거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에 제시된 과목을 준거로 각 학회가 정리한 내용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검토·확정한 것이며, 2009학년도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부터 표시과목별 출제 문항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중등 음악교사 임용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내용요소 중 79%만이 출제되었고, 음악과의 72개 평가내용요소 중에서 약 28개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점은 평가내용요소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출제위원단의 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의 일부가 문항 출제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시된 평가내용요소와 출제된 문항 간의 불일치가 너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만약 음악과의 일부 평가영역이나 평가내용요소가 임용고사의 문항으로 출제하기에 너무 상세화 되어 있다면, 기존의 평가내용요소를 포섭하는 상위의 개념 또는 원리로 평가내용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 사료된다. 혹은 제시된 평가내용요소 각각이 음악 교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로서 존재 가치를 갖는다면, 향후 임용고사 문항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평가내용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사려 깊은 노력이 요망된다.

전통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해 온 우리의 풍토에서 시험의 결과는 학습의 정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이 더 많이 학습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풍토에서, 시험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정도를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시험에서 특정의 내용만 반복 출제될 경우, 학생들이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에만 집중함으로써 지식의 균형적인 습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평가원의 ‘음악과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가 임용고사의 문항을 개발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에서 시험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제안한 음악과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에 비추어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임용 시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의 공유를 촉구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사 선발 임용시험에는 전공영역이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음악과 각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서 평가 영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평가내용요소가 중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음악을 전공하는 학문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로 대두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음악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사편찬위원회 (1971). 대한민국사. 서울: 심구당.
- 김선영 (2008).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음악과 교과교육학 문항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소민 (2007). 사범대학 음악교육전공 교육과정 연구 : 음악과 임용고사 필기 문항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김영주 (2009). 중등 음악교원 임용고사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김재연 (2010).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음악과 출제 문항 분석 연구-2005년부터 2010년 국악 문항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희진 (2008). 중등학교 음악과 임용고사문항과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의 상관연구 : 서울시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위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민경훈 외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 학지사.
- 백순근·유예림 (2008).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1권 3호, 69-91
- 손옥 (2007). 음악과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은실 (2004). 중등교원을 위한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정재은 (2012). 미국 음악교사자격시험의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 음악교원 임용고사 개선방안연구. 예술교육연구, 10(2), 61-80.
- 최호성·박창언·최병욱 (2012). 교육과정 :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완 (2007). 음악과 임용고사 출제경향의 분석을 통한 대학 음악교육과의 교과과정 개선방안 연구: 2000년-2007년도 국악이론 출제 문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Mark, M. L.(1988).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Towson State University.

ABSTRACT

**Trend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Questions
: 2009~2013 School Year**

Kim, Young Mee · Choi, Byung Ok

This study analyzed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content knowledge of musical education subject for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conducted from the school year of 2009 to 2013 based on the evaluation scope of the musical education subject content knowledge and evaluation contents which were presen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KIC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 total of 200 questions were collected with respect to the questions that appeared on the test over the last 5 years which aimed to evaluate the level of applicants' knowledge related to the contents of musical education subject. The ratio of the contents covered in the test was assessed based on the scope of evaluation and the items for evaluation among the 12 subjects.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music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musical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or the restructuring of the evaluation scop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items that appeared on the test among the 12 subjects related to the content

knowledge of musical education. Also,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tems covered in the test among the evaluation scope by subjec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valuation content items suggested that 15 items out of 72 items did not appear in the musical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for 5 years. Based on such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readjusting the ratio of items covered in the test of content knowledge related to musical education or the evaluation scope and evaluation content items.

key words : content knowledge of musical education, certification examination of secondary school teacher, items analysis, curriculum of musical education

투고일: 2013년 5월 25일, 심사(수정): 6월 15일(7월 9일), 게재확정일: 8월 9일